

## 동학농민혁명 지휘소에 있던 느티나무

|      |       |                   |
|------|-------|-------------------|
| ✿    | ✿     |                   |
| 지정번호 | 옥천-35 | 충북 옥천군 청산면        |
| 지정년도 | 1995  | 한곡리 320           |
| 관리기관 | 옥천    | 36° 18′ 32.78″ N  |
| 수령   | 526년  | 127° 47′ 50.57″ E |
| 수고   | 17m   |                   |
| 흉고둘레 | 7.3m  |                   |



동학농민군과 혁명운동의 탐방길 주변에 있는 보호수(옥천-35) 느티나무는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산골 산책로의 바위 옆에서 자라고있다. 느티나무는 동학과 관련한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남은 나무이다. 인근에는 동학기념공원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2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7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거의 20m에 이른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에서 가지가 2갈래로 갈라졌다. 갈라진 한쪽 가지는 곧게 자라고 있으며, 다른 가지는 비스듬히 뻗다가 다시 2갈래로 나뉘지면서 넓게 펼쳐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스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던 시절에 너럭바위 자리를 좋아한 스님이 자주 나와 쉬곤 하다가 바위 바로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의 보호수 느티나무이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 느티나무 아래는 동학농민군을 훈련시키던 지휘부의 지휘소이었다. 그 주변은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이었다. 한곡리 일원의 마을은 제2대 교주 최시형(1827~1898)의 주도로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집회를 열었던 곳이다. 최시형은 이 마을에 머물면서 여러 곳에 흩어진 농민군과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동학군의 지도자들은 농민군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소를 마련한 곳이 바로 이 느티나무 주변의 공터이었다. 지금은 이 곳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느티나무 옆의 너럭바위는 훈련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휘소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너럭바위는 한때 스님의 침터이었고, 또한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한 농민군의 지휘소였던 것이다. 한편 이 마을에는 특별한 산책로가 있다. 동학역사 탐방길이다. 이 길에서 동학과 관련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보호수의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느티나무는 동학기념공원에서 저수지와 이어지는 산책길을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다.